

꼭막힌 목포시 건설·교통행정

도로파손 등 주민 민원제기해도 해결보단 수동 대처 '시장에 바란다' 목소리중 30% 차지... 대책마련돼야

목포시 건설·교통행정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건설과 교통분야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설·교통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매일 1건씩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 바란다'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2010년 한 해 동안 올라온 민원은 총 151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45개 실과소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과 소관이 240건, 교통행정과 소관이 229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볼 때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관련 민원이 매일 1건씩 올라온 것이다. 게다가 이 코너

에 올라오는 민원은 소시민들이 실명으로 제기하게 돼 있어 주목된다.

올해 들어서도 5월말 현재 440건 가운데 교통행정과 90건, 건설과 69건이 제기돼 교통·건설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월초 제설 관련 민원 제외)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도시 특성상 건설·교통 분야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변명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3건 가운데 1건이 교통·건설 관련 민원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통행정과와 건설과는 대 시민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민원인들의 불만족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보과가 밝힌 자료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들어 교통행정과는 2건(설 교통대책 제외)의 홍보자료를 냈고, 건설과도 2건에 불과하다. 더욱이 건설과의 경우 제설 관련을 제외하면 단 한 건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

특히 최근 1년사이 상·하수도(BTL 포함)·도시가스 등 무려 36km의 시내 도로가 파헤쳐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주민 홍보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목포시 건설·교통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단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선 4·5기 들어서면서부터 '열린 행정'을 표방해 왔고, 목포시 행정서비스 현장에도 '고객인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중략)'라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A 의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바로 빨리 사업비나 주민숙원 사업비, 낙찰 차액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시민들의 건설·교통 분야 민원을 보면 유사 민원이 많은데,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상당수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시민홍보 부족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삶의 질 하락을 체감하게 만들고 나아가 시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목포해양경찰서와 진도군은 지난 27일 서방향 일원에서 지역환경을 저해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바닷가 대청소를 통해 해양쓰레기 50t(진도군 제공)

목포해양경찰서와 진도군은 지난 27일 서방향 일원에서 지역환경을 저해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바닷가 대청소를 통해 해양쓰레기 50t(진도군 제공)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목포경찰서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27일 목포 원예농협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및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안설명회에서는 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주민 김철수(50)씨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경찰서 주요 치안성과와 2011년 중점추진업무 소개, 상동·이로파출소 치안 관련 영상물 감상 순으로 이어졌다.

목포경찰은 주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원국 서장은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해 고객인 국민이 원하는 경찰로 바로 서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해상 안개·태풍... 선박에 안전 주의보

목포 해양안전심판원
목포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은 "6월은 안개 및 태풍 발생 등 열악한 해상 여건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항해하는 선박들은 해상 기상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태풍발생시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물론 먼 바다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태풍 발생 및 진로에 대한 기상예보 정확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개가 자주 발생해 시정이 불량하므로 충돌사고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레이더를 관찰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무중(霧中) 항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진돗개 전용 메디컬 센터 개원

진도군 체계적 질병관리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의 전문 진료시설인 '진돗개 메디컬 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진)

진도군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진도를 동외리에 부지면적 3569㎡, 건축면적 1162㎡ 지상 3층 규모의 '메디컬 센터'를 준공, 31일 개관했다.

센터 1층은 진돗개 메디컬센터, 2층은 사무실·연구실, 3층 다목적 강

당이 설치돼 진돗개의 체계적인 질병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 진돗개 사육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를 통한 명품 진돗개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적인 명경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개 메디컬센터 개관식

전 북

외자유치 무산 군산 비응도 호텔부지 호텔+가족형 콘도 건립

市 예비타당성조사 보고회
사우디아라비아 자본 유치가 무산된 군산 비응도 호텔부지에 호텔형 콘도와 가족형 콘도 기능을 갖춘 복합형 리조트가 조성될 전망이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E&P 건설사업에 의뢰해 실시한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부지에 호텔형과 가족형 콘도를 함께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비응도 부지의 관광 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단순 호텔 기능보다는 호텔과 가족형 체류 시설을 갖춘 질좋은 리조트와 테마상가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규모도 볼때 호텔형은 10층 높이에 260실 규모, 가족 체류형 콘도는 2층 높이에 190실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시는 비응항 호텔부지의 관광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틀 콘도 이외에도 아쿠아리움과 실내수영장, 컨벤션센터 등의 부대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6월초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내외 공모를 거쳐 자본력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업체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볼때 비응도 호텔부지 투자자 선정은 빠르면 9~10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체류형 관광지의 조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쟁력있는 투자자를 유치해 빠른 시일내에 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타임캡슐을 찾아라

새만금 타임캡슐을 여는 사람들 등 전북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전주 서학동 성당에서 10년 전에 땅에 묻은 타임캡슐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진포 해양테마공원 야간 개방

위봉함 갑판 등 9월까지
군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포 해양테마공원을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저녁 9시까지 야간 개방한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진포 해양테마공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및 외래 관광객이 금강변의 야간 경관 구경과 함께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간개방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간개방 기간중에는 시설보



호를 위해 위봉함 내부시설은 관람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봉함 갑판은 외부객이 금강변의 야간 경관 구경과 함께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간개방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 토종벌 올해도 '떼죽음'

남충봉아부패병에 98% 감염 폐사 원인 등 대책없어 사육농 붕괴 위기
전북지역 토종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충봉아부패병'의 확산으로 폐사 위기에 놓였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토종벌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남충봉아부패병'이 다시 번지면서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전체 13만4천584군의 98%인 13만3000여 군의 토종벌이 폐사하거나 감염돼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군은 벌통 하나를 대략 1만여 마리의 벌이 산다.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고 전과 속도 가 빠른 '남충봉아부패병'은 도내



에서 지난해 처음 발생해 남원 지리산 일대를 비롯해 순창, 장수, 임실, 완주 등 산간지역 중심으로 확산했다.

이 병은 꿀벌 애벌레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발병하면 유충의 피부가 굳어지며 점차 말라 죽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토종벌 육성을 위해 올해 초 농가 4곳에 200군을 보급했으나 이 가운데 농가 3곳, 60군에서 부패병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또 일반농가도 올해 들어 13곳에서 320군의 '남충봉아부패병'이 발병해 도내 벌사육 농가도 13곳에서 320군에 이어 올해도 확산하고 있지만 과

밀 사육과 인공사육 공급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과 전파 원인을 밝혀지지 않아 토종벌 사육 농가는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도내 토종벌 사육은 남원지역이 45%, 완주 11%, 진안 10%, 임실과 순창이 각각 8% 안팎이며, 전국 토종벌 사육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육 농가들은 이를 재해로 인정해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병의 확산으로 토종꿀 산업 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크지만, 예방백신도, 치료방법도 없어 안타깝다"면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잔재물 검사와 소독을 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전주 디지털영화관 미개봉 독립영화 10편 상영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은 개봉되지 않은 한국 독립 장편영화 10편을 상영하는 기획전 '빛나라 독립영화 2011 감독 열전'을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

상영작은 박세영 감독의 '타운쉽 스토리', 이체 감독의 '착한 살인자', 박동현 감독의 '기루', 정재훈 감독의 '호수길' 김관철 감독의 '물 없는 바다' 등으로 작년

정읍 전통시장 명칭변경... '샘골' '연지' 시장으로

정읍지역 전통시장이 명칭을 바꾸고 활력 찾기에 나섰다.

정읍시는 "제1시장(구 시장)은 '샘골시장', 제2시장(신시장)은 '연지시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50여 년간 지역특성 및 상징성과는 별개로 사용돼 왔던 시장명칭을 시민들에

김제사랑 장학재단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김제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초등학교 2~6학년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0주간 '제2기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생활과학교실은 이론보다는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 등을 통해 과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생활과학교실은 ▲용수철 자동차 ▲대륙의 이동 ▲잔디인형 등과 함께 특별 프로그램으로 '염색탐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063-540-3584)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고창산 '복분자음' 술 품질 인증 받아

배상면주가 고창LB가 생산한 '복분자음'이 한국식품연구원의 '술 품질인증' 제2조·제품 심사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를 발효시켜 빚은 '복분자음'은 순수 국산원료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품질인증 술 100% 국내산'이라고 새겨진 황금색 인증마크를 달게 됐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